

Hana FX Weekly Letter

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외환파생상품영업부

2025. 9. 29

주간 달러/원 동향(9/22~9/26)및 전망



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연준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며 위험 선호 분위기 확산된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자금 유입된 영향으로 환율은 하락 출발. 이어, 대미투자 관련 한-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란 우려 속에 원화 약세 흐름 이어지면서 반등
- 중반, 파월 의장.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한 견해 드러내는 등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되자 위험회피 심리 유입되며 큰 폭 상승 후 1,400원대 진입
- 후반,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며 달러 반등한 가운데 수입업체 결제수요와 해외투자 환전 수요 등 수급상 매수 우위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 이어 주 후반, 미 2분기 GDP가 3.8%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는 소식에 달러가 크게 강세 보인 영향으로 1,410원선 근접 마감

달러/원 전망

- 금주, 미 8월 PCE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 속 전일 환율 급등의 오버슈팅 가능성 등을 반영 다소 하락 추세 나타낼 것으로 예상
- 여기에 월말 수출 관련 달러 매도 확대 가능성도 수급적으로 환율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- 다만, 지속되고 있는 한-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과 협상 결과 발표를 앞둔 경계감 등이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------	------	------	------	------

1398.5	1414.0	1390.4	1412.4	+18.8
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

예상거래범위

1,400원 ~ 1,415원

유로·엔화 동향 (9/22~9/26)



유로화 동향

- 주초, 나셀 분데스뱅크 총재가 유로화 평가 절상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약화 우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영향으로 유로화는 큰 폭 강세 보이며 출발. 이어 미국 서비스업 및 제조업 경기가 둔화세를 보인 반면 유로존 9월 종합 PMI 예비치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등 경기 회복세 이어진 측면이 대비되면서 추가 강세
- 중반, 연준위원들 매파적 발언에 달러 강세 나타난 가운데 독일 9월 기업환경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점이 유로 약세 견인
- 후반, 예상을 크게 웃돈 미 2분기 GDP와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에 연준 정책 완화 기대감 열어지자 큰 폭 약세 보이며 1.16달러선까지 하락. 이어 주 후반, 미 8월 PCE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안도감과 연준 부의장의 금리인하 지지 발언에 달러지수 하락에 연동되며 1.17달러선 회복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1746	1.1819	1.1645	1.1701	-0.004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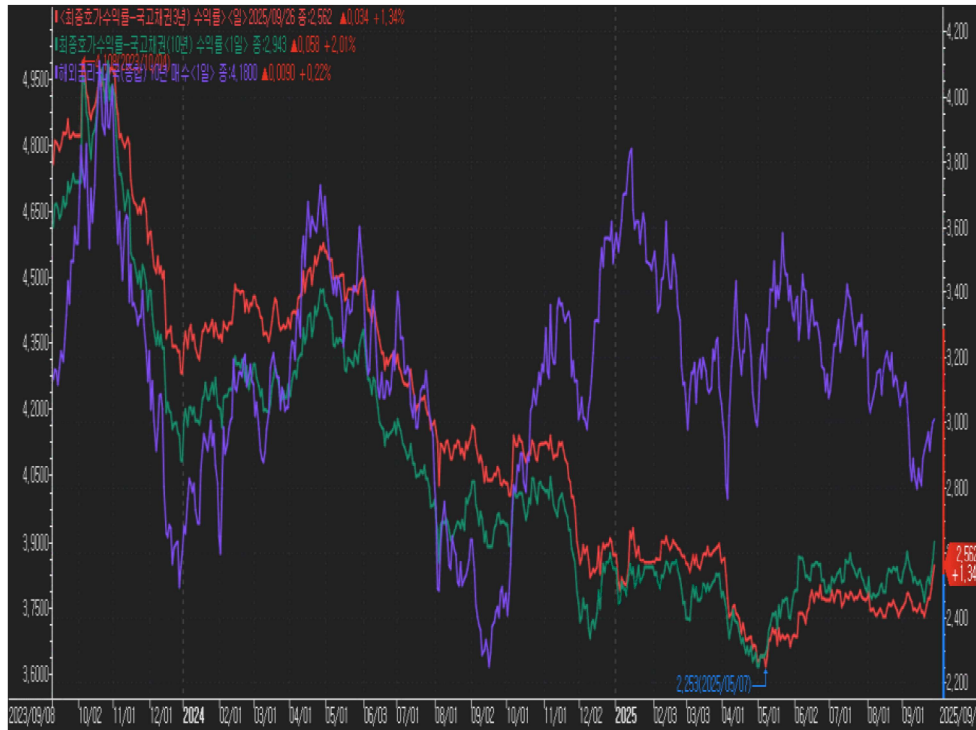


엔화 동향

- 주초, 공격적인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마이런 연준 이사의 발언이 부각되며 달러가 약세 보인 영향으로 엔화는 소폭 강세 출발. 이어 일본 금융시장이 추분절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한 관망세 속 강세 흐름을 유지
- 중반, 파월 연준 의장, 추가 금리인하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자 미 국내금리 상승한 측면 반영하며 달러 대비 약세로 전환
- 후반, 미 2분기 GDP가 3.8%로 전분기 -0.6% 대비 크게 반등했다는 소식에 연준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크게 약화된 측면이 달러 강세 지지하면서 149엔선까지 약세폭 확대. 이어 주 후반,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한 미 PCE물가지수에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약세폭 일부 되돌리며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47.9	149.9	147.4	149.4	+1.54

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(9/22~9/26)



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초반, 미 국채 금리 상승 영향을 반영한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확대 등으로 상승 출발. 이어 간밤 공개 발언에 나선 주요 연은 총재들이 대체로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지만, 장중 금통위원의 연내 1회 금리인하 단행 견해를 나타낸 점 등이 반영되며 하락 전환
- 중반 들어, 미 국채 금리 반락 속에서도 국고채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가 3년, 10년 국채선물 순매도 규모를 키운 영향 등으로 상승
- 후반 들어, 오전 공개된 한은 금융안정 보고서 내용이 매파적 기조를 보였다는 인식에 외국인 투자자의 3년 국채선물 투매 영향 등으로 크게 상승 후, 주 후반, 미국 2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3.8%로 시장 예상을 상회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악화로 이어진 국면 속, 한-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자산 투매 영향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급등 양상을 나타내며 마감



주간 증시 동향

- 초반, 뉴욕 증시가 금리인하 이후 긍정적 투자심리가 이어지는 형국 속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품질테스트 통과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출발. 이어 미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와 애플 등 기술주 강세에 따른 국내 반도체주 중심 상승 압력 반영 속 소폭 상승 흐름 지속
- 중반 들어, 코스피는 전일의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며 최고치 경신 후 파월 의장의 '증시 고평가' 발언에 따른 뉴욕증시 하락세를 반영, 차익실현 매물 확대 등으로 하락 전환한 양상
- 후반 들어, 한-미 관세 협상에서의 환율의제 등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코스피 고점 부담 등에 영향이 반영되며 약보합 흐름 나타낸 가운데, 주 후반, 미 2분기 성장률이 주요국 대비 큰 격차를 보인 가운데 연준의 견내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및 한-미 관세 협상 난항 우려 속 환율 급등에 따라 코스피는 가파른 조정 양상 속 큰 폭 하락 마감